

인류촌, 지구촌이 위험하다

기고

박일서
시인



언젠가 뉴스를 보다가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우리가 쓰다 버린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모여들어 거대한 섬을 이룬 광경이었는데, 오늘날 인류문명이 초래한 또 하나의 큰 재앙처럼 느껴졌다. 지구촌의 악성 종양 같은 모습이었다.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를 번역하면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의미다. 북태평양을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지칭하는 말이다. 태평양 바다 위에 섬처럼 보이는 물체의 크기가 한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고, 무게 또한 8만 톤이나 된다니, 깜놀, 섬뜩할 밖에..

지구야말로 온 우주를 통틀어 단 하나 밖에 없는 인류촌이기에, 생태 자연과 인류가 서로 함께 호흡하며 공생 공존해야 하는 삶의 터전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구촌 환경과 관련한 크고 작은 징후들이 기후 위기로 감지되고 있다. 위험 신호들이다.

중국 대륙은 지표면 온도가 섭씨 70도를 오르내리는가 하면, 미국 남서부에선 폭염에 열돔 현상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또한 추운 나라 러시아에서도 134년 만

에 맞는 무더운 여름(32.7도)을 견디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도 지구촌 곳곳에 가장 많은 폭우와 폭염을 예보하며 2024년도를 주시하는 중이다.

'기후 난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지구 온난화로 빙산과 만년설이 녹아내리며, 파나마에선 1300여 명의 섬 토착민들이 육지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최초의 기후 난민으로 기록됐고, 2050년도엔 약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공화국도 자국의 침수 위기를 다급히 호소하고 있다.

하긴, 우리들 인류에게 있어 쉽 없는 역사발전은 이끌어온 건 불굴의 도전정신이었다.

이는 오늘날 인류문명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자 필연적 인간의 욕망이었고, 시대적 큰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 살 깎아 먹기'로 나타났고, 작금의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시시각각 쏟아지는 생활 쓰레기들, 이는 모두 돈 벌이에 맞춘 경제 논리의 부산물인 셈이다. 문명의 찌꺼기들이다. 내구성 강한 탐욕들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건 곧 너와 나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플라스틱 제품들이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무려 수십 년에서(비닐봉지 20년) 수백 년(스티로폼 용기 5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거기 더해, 땅에 묻힌 폐전전자야말로 무려 200만 년 그 이상을 거쳐야 한다는 과학적 충고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였던가.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을 자각할 때다.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다. 고질병에 점 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되고, impossible(불가능)이 I'm possible(가능성)로 딱딱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속히 희망을 만들 때이다.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화석 연료나 온실가스 그뿐만은 아니다. 사실상, 가장 큰 주범은 쉽 없이 문명을 주도해온 그 혜택의 당사자들로서 그들이 곧 인류인 셈이다. 그래서 결사해지의 책임 또한 우리들 각자일 수밖에 없다. 일회용품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아쉬운 이유다.

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 가치 인식이 급선무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바이오, 해상, 풍력, 수력, 지열,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의 연구와 개발, 그 활용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 응급 의사가서 심정으로 지구촌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온 내일을 어김없이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하면 위대한 염원이 되고,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적기라는 걸 명심할 일이다.

社說

그날의 합의 정신 아쉬운 평양공동선언

광주·전남서 6주년 기념행사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9일과 20일 광주와 전남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됐던 '9·19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 경제 협력과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공존이 핵심이다. 남·북 대화가 끊기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그날의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평양공동선언'은 사상 처음 한반도의 비핵화 방안을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북한 핵시설의 영구폐쇄에 합의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에도 뜻을 모았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상 상봉을 실현하고 오는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도 약속했다.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중전선언'이나 마찬가지로

가지였다.

하지만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당장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으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북·미간 의견차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남·북 경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시작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도 시작부터 막혔다. 중전선언 등 상당부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남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6년 전에 비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6년 전,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시작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거쳐 '민족경제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로 마무리된다. '9·19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지 오늘로 6주년. 남과 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날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평화는 남과 북 모두가 공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추수 전 병해충 적기방제로 확산 막아야

벼멸구 전년보다 1.7배 증가

9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도 전남에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다. 쌀값 하락에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벼멸구는 6~7월 중국에서 유입돼 벼 포기 아래 서식, 벼 출수 이후(8~9월) 벼대의 중간 부분에서 즙액을 먹어 고사 시키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폭염이 9월까지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도내 벼멸구 발생면적이 평년(3876ha)보다 1.7배 많은 6696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서둘러 긴급방제에 나서서 모양새다. 전남도는 농업기술원, 농협 전남본부와 공동으로 농약의 안정적 공급, 방제 지도, 약제 구입비 지원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22일까지 닷새 동안을 긴급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벼멸구 방제비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부터 보성, 해남 등 상

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 도와 농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전담지도사 70여 명을 긴급 투입, 신속한 방제와 현장 실태점검에도 나섰다.

벼멸구는 주로 벼대 밑부분에 서식하는 만큼 발생 농가에서는 농약이 벼대 아래까지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는 등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전남도는 당부했다. 농가의 적기 방제도 시급하다. 하지만 쌀값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기에 방제가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 떨어진 쌀값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적기 방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나마 농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들녘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다. 풍년보다 태풍이나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줄길 바라는 심정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애써 지은 쌀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농심이다. 적기 방제로 벼멸구 확산을 막아 조금이나마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에 뜬 보름달을 배경으로 항공기 한대가 지나고 있다. 이번 보름달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35만8211km로 평균 거리보다 가까워 더 밝고 큰 슈퍼문이다. AP/뉴시스

서석대

지인이 추석선물이라며 조청과 식혜를 보내왔다. 피자, 치킨보다 옥수수, 고구마를 더 좋아하는 입맛인지라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맙기 그지 없었다.

조청이나 식혜는 김치, 된장, 젓갈, 전통주처럼 삭히고, 익히고, 빙고 기다려야 하는 발효음식 가운데 하나다.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발효는 신비롭다. 식품이 발효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영양소는 향은 물론,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주는 정장 효과도 탁월하다.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문명평론가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제1의 맛은 소금, 제2의 맛은 양념, 제3의 맛은 발효라며 발효음식을 극찬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이영 교수도 '생각'이라는 책에서 김치가 한국음식을 대표한다는 것은 발효가 한국음식의 밑바탕이라는 말과 같다고 표현했다.

지인들과 팔도 먹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식맛은 역시 전라도'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식가들이 성지로 꼽는 맛기행 1번지는 단연 정정바다와 갯벌, 산과 들에서 온갖 물산이 풍성하게 나는 '전라도땅'인 것이다.

비밀 데가 없는 탁월한 맛을 자랑하는 '전라도 음식'의 원천은 발효에 있다. 재우고, 삭히고, 익혀 세월에 맡기는 남도의 발효음식은 기다림의 산물이다.



음식의 풍미에 더해,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전남 우수 발효음식은 그 가치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누구나 즐겨먹는 김치만 해도 갯김치, 고들빼기김치, 갯잎김치, 파김치 등 20여 가지가 넘는다. 홍주, 진양주, 황칠증류주 등 전통주는 물론 새우젓, 멸치, 황시리젓, 갈치젓 등 전남산 젓갈류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뿐이겠는가. 발효식초와 함께 수백년 전통 대물림을 고수한 종가들의 깊고 진한 맛을 지닌 된장, 고추장 등 장류도 전국 유명 셰프들이 즐겨 찾는다.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맛을 내는 발효 떡도 유명하다. 화순 사평이나 광양의 기정떡, 담양오방기정떡은 널리 알려진 특산물이다.

가히 맛의 예술을 자랑하는 남도 음식을 한자리에서 모두 맛볼 수 있는 흥겨운 잔치가 한바탕 펼쳐진다. 올해로 30년 역사를 가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다.

미향(味鄉) '전라맛도'의 명성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 축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다음 주인 27일부터 사흘간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글로벌 축제로 열린다.

웅숭깊은 전라도 사람들의 정서와 인심, 그리고 손맛으로 빚어 낸 남도음식의 재미진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 |
| www.jnilbo.com m.jnilbo.com |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